

칼럼



장기채 주필

노인 사회 삶, 이대로 좋은가

고령화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가릴 것 없는 세계적인 추세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행하는데 115년이 걸렸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는 40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독일은 각각 40년과 37년, 미국은 73년과 21년이 걸렸다고 한다.

2006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일본은 24년과 12년이 경과됐다. 한국은 고령사회 18년, 또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겨우 8년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유독 심각한 것은 선진국과 달리 충분한 경제 성장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령화 현상은 한마디로 '압축적 고령화'라 할 수 있다. 빠른 속도만큼 문제점들이 응축돼 있는데도 국가적 사회적 대비는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허접 투성이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노인들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난뱅이로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고령자 절반가량(48.1%)은 빈곤 층이다. 그런데도 지금 같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30년에는 OECD 평균을 넘어선 24.3, 2050년에는 OECD 평균 25.8%를 훨씬 뛰어넘는 38.2%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인류 사회는 인류가 그

렇게도 원하던 장수사회를 이룩했다.

그러나 장수사회의 도래는 생산 인구의 감소와 부양인구의 증가라는 새로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다시 말하면 세계적인 급속한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동력 감소, 저축률과 투자율의 감소를 야기했다. 예컨대 1950년경의 아시아권 노인인구는 5,760만 명으로 4.1%에 불과했다.

하지만 2050년이면 9억 2,290만 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의 7.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다 보니 노인 부양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노년부양비는 2010년 15.2명이

지만 2040년에는 57.2명, 2060년에는 80.2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재정 지출이 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고 노인 빈곤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따라서 과연 한국의 노인들은 위기에 처해 있는가.

자녀들은 점점 부모를 모시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의 사회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병들고 버림받은 노인들이 스스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의 노인들은 격동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온갖 고통과 역경을 극복한 세대다.

부모들에게 효(孝)를 행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들로부터 효를 받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이기도 하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그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부채를 지고 있다.

때문에 노인 복지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정책 순위의 상위를 차지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고령사회'의 운영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결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성이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각종 사회 보험 운영에 구멍이 생긴다.

돈을 내는 젊은이는 적고, 돈을 타가는 노인만 많으면 보험이든 연금이든 지속 가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급속한 고령사회 진행은 젊은이들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에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본격화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는 66조 5637억 원을 쏟아 부었다.

출산율을 높여서 고령화를 저지하기란 이미 때가 늦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따라서 균형 잡힌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 사회처럼 압축적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준비는 간단치 않다.

그래서 더 치밀하고 배려 깊은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독일 자동차 회사 BMW의 사례는 눈여겨 볼 만하다. BMW는 신체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를 위해 무릎 충격을 완화 시켜주는 나무 바닥재를 깔고, 조명을 더 밝히고, 작업장에 확대경을 설치하는 등 크고 작은 79여 개 조치를 취했다.

비용은 5만 달러, 5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이 들었다. 변화는 놀라웠다.

무엇보다 결근율이 크게 줄어들고 공장의 연간 생산성은 7%가 높아졌다.

BMW는 역시 인류 기업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고령화에 대비한 혁신인 셈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numbers, and address.

2021년 신축년(辛丑年) 코로나19 없는 청정 대한민국

팬데믹이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전염병 경보 단계 중 최고 위험 등급인 6단계를 일컫는 말로 두 개 이상의 대륙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며 1968년 홍콩독감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2020년 3월 11일 사상 세 번째로 코로나19가 선언되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을 시작으로 2020년 12월 8일 기준 국내 확진자는 38,755

명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6,638만 3,984명으로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제2차 유행이 시작된 듯 국내에서도 확진자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수도권에서는 사회적거리두기를 2.5단계로 전담에서는 2 단계로 격상하여 지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따뜻하게 보냈던 지난 해와는 달리 올해는 지역주민 모두가 움츠러든 연말이 되어 가고 있다.

이시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

위지기 위해서는 백신이 개발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지만 그 이전까지는 적극적인 개인 및 시설 방역 수칙 동참 필요한데 이번 전남도에서 발표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 조치 주요내용을 보면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시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 ▲집회를 포함한 100인 이상 모임 또는 행사는 금지, ▲22시 이후에는 노래연습장 및 유흥 시설 운영 중단, ▲카페는 포장 및 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2

시 이후 포장 및 배달만 허용 등이 있다.

국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는 이시기 위와 같은 사회적거리두기 방역 조치 적극 동참을 통하여 다가오는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는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웃으며 모일 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충현/장흥경찰서 정보경비계경사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형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